

노지문화 보존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활동하는
노지문화 생태예술가

유 동 혁

유동혁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제주에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제주를 더 늦기 전에 기록하고자,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읍 수산리를 선정했다. 마을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마을 주민 개개인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제주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노지문화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활용해 제주도만의 경험, 제주다움을 보여주고자 한다.

활 동 명 : 동네 한바퀴

대 상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결 과 물 : 사진

기 록 : <https://youtu.be/nBK2FjkLbw0>

1. 그간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끌려 2013년도 즈음부터 육지와 제주를 오가며 사진 작업을 해오다가 2019년부터 완전히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늦기 전에 저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싶어서 작년부터 제주도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제주도의 자연을 촬영하며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이주민의 유입과 그에 따른 개발로 인해 제주도 마을의 특색있는 역사문화가 사라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올해부터는 마을의 사라져가는 역사문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수산리는 제2공항 부지에 속한 터라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개발로 인해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105개의 마을 중 다른 마을보다 이곳이 더 급해 보였기 때문에 여기 성산읍 수산리를 제가 들여다볼 노지로 선정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3. 작가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의 노지문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마을 속 개개인의 기억과 삶의 방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기억과 경험 자체가 노지문화이자 이곳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찌 보면 일종의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 관계를 맺어나가며 함께 이곳의 고유한 아름다움 - 제주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지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4. 작가님이 바라는 노지문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레 키워온 이곳의 노지문화를 알아가며 앞으로 제가 이들과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사진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예술가 또는 기획자의 관점에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서로 교류하며 이곳의 노지문화를 가꾸어나가고자 합니다.

현장

현장 답사 및 인터뷰 (사진 출처: 스튜디오 sssstudio)

수산리 현장 답사, 취재 및 기록







현장

기록 (사진 출처: 유동혁)

진안할망당



수산진성



부부석



